

본회 축산물 수입개방 반대 서명운동 적극 전개

본회는 6월 11일부터 시작한 한·미, 뉴질랜드, 호주와의 쇠고기 수입협상에 앞서 전국의 본회 각 도협의회와 지부별로 축산물 수입개방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, 6월 11일에는 전동용회장과 임원 지부장이 축산단체와 공동으로 과천 제2청사를 방문해 반대시위를 벌였다.
한편 중앙회 직원들도 버스터미널과 서울역, 백화점 등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.





5

- ①본회 전동용 회장이 「무책임한 축산행정 수입정책 중단하라」는 구호를 선장하고 있다.
- ②③“우리 축산업 사수”를 외치는 본회등 각 축산단체 회원과 농민들
- ④김정용 축산국장이 농민단체장들에게 협상 진행과정을 설명하고, 「미국측에 우리 양축가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」고 답변하고 있다.
- ⑤본회 직원들이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
- ⑥본회 이명복 부회장이 수원에서 시민들에게 서명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.
- ⑦정부 제2청사 앞에서 「축산물 수입개방 결사 반대」를 외치며 전경과 대치중인 양축농민들
- ⑧본회 경기도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수원 남문로 일대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.
- ⑨그랜드 백화점 앞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모습



6



7



8



9